

국가알코올정책에 대한 인식도 연구

천성수*, 윤선미·정현미·Rubelyn Inot·Easton Reid·Michael Welch**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 전공, **한국알코올문제연구소

■ 연구배경 및 목적

알코올은 중독성이 강하고, 음주행위가 사회적 행동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알코올소비를 줄이고 음주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전국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에서 만 19세 이상인 남녀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은 광역시와 도별로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표집이었으며, 대도시의 경우 구의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구를 선정하였다. 총 수거된 설문지는 569개였음.

■ 연구결과

12가지 음주정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의견이다. 각 문항은 매우큼(1점)에서 매우 적은 편임(5점)으로 측정된 후에 다시 매우 크과 큰 편임은 “큼”, 보통은 “보통”, 적은 편과 매우 적은 편은 “적음”으로 다시 범주화 하였다. 또한 12가지 음주정책에 대한 도입의 찬반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5점 척도의 문항을 “찬성”, “보통”, “반대”로 다시 범주화하였다.

음주정책에 대한 효과성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65.2%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유형업소 규제법 및 단속”이 45.3%, “공공장소 음주제한”이 44.3%, “절주홍보” 40.6%, “절주교육” 39.9%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장 낮은 문항으로는 “지역사회 감시”가 28.6%로 나타났다.

음주정책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한 질문은 효과성에 대한 질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속”이 84.2%로 가장 찬성을 많이 하였고, 다음으로 “유형업소 규제법 및 단속”이 65.9%, “절주교육” 64.3%, “절주홍보” 63.8%, “공공장소 음주제한”이 61.3%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장 낮은 찬성비율 문항으로는 “가격인상” 34.3%와 “건강증진금 부과” 38.0%로 가격과 관련된 정책이었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음주정책에 대하여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찬성의 비율도 높았다.

■ 결론 및 제언

음주운전 단속과 같은 음주폐해를 예방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정도가 크고, 본인들의 음주 행동을 규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음주 수준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알코올소비와 음주폐해에 대한 국민인식도 제고가 필요하여야 정책의 수립시 용이성이 담보될 것으로 판단되다.